WWW.KMI.RE.KR

제 226호 · 2013년 10월 17일

해운·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길광수 감리위원

KMI 국제물류위클리

KOREA MARITIME INSTITUTE





| CONTENTS |

물류정책·사업동향

1. 지린(吉林)성 2015년까지 5개 물류단지 건설 추진
2. 러시아 MANP 터미널, 복합운송 서비스 개시
3. 프랑스 르아브르항, Port 2000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 최종단계 진입
4. CEVA, 제약품 수송을 위한 새로운 콜드체인 솔루션 출시

물류시장동향

1. DHL Express, 2014년 운임 인상 발표
2. 아시아발 유럽향 해상 컨테이너 운임 인상 예정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물류정책·사업동향

□ 지린(吉林)성 2015년까지 5개 물류단지 건설 추진

○ 지린성 사회물류총액은 2012년 2,130억 위안이며 그 중 교통운송업 총액은 505.3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3.5%로 지속적 성장
- 현재 장춘에는 12개의 종합물류단지, 5개의 운송 센터가 운영 중이나 초과 물류 수요를 수용할 인프라는 부족

○ 지린성은 급증하는 물류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5년까지 5개의 첨단물류단지 건설을 추진
- 현재 장춘에는 12개의 종합물류단지, 5개의 운송 센터를 중심으로 화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지린성의 중심도시인 창춘(长春)에 추가 물류단지를 건설할 예정
- 물류단지는 1개의 물류권내에 하다(哈大), 투우(图乌)를 두축으로 서부, 북부, 동북부로 구분되고 총 6개의 물류구역[1]으로 구분하여 1권2축3부6구(一圈二轴三片六区)체제로 운영할 계획
- 현재 창춘 도심인 사환(四环)내에 위치한 물류단지들을 점차 사환 외각으로 이전시킬 예정

○ 또한 지린성 정부는 약 25개의 화물운송 시범기업을 육성하여 화물운송차량을 1,000대 이상으로 증차시킬 예정
- 이치물류유한공사(一汽物流有限公司), 솽랴오시쟝산물류유한공사(双辽市江山物流有限公司), 창춘시야치물류유한공사(长春市亚奇物流有限公司) 등 3개 물류업체를 최근 국가급 화물운송 시범기업으로 지정
- 이 밖에 10~20개의 성급 화물운송 시범기업을 육성하여 대형물류업체로 발전시킬 계획

○ 물류단지 건설 및 운송기업 육성으로 동베이 지역 및 북한과의 효율적인 물류네트워크 형성 및 녹색 물류를 실천할 계획
- 지린성은 동북아 각국과 수출입 총액을 매년 13% 증가시키기 위해 훈춘(珲春)에서 췐허(圈河) 세관까지의 도로와 투먼(圖們)에서 북한의 청진까지 이어지는 국제운수도로 확충 계획
- 지린성 정부는 연결되는 철도 및 도로를 확충하여 향후 북한과의 증가하는 수출입 물동량에 적극 대응할 예정

자료 : dnews.365jilin.com, 2013.10.15.

박여진 연구원 (☎ 02-2105-2967, yjp06@kmi.re.kr)
이주호 부연구위원 (☎ 02-2105-2890, jooho@kmi.re.kr)

1) 6개 물류구역 : 얼다오국제종합물류집중구(二道国际综合物流集中区) ; (자동차물류집중구)汽车物流集中区 ; (징위에녹색물류집중구)净月绿色物流集中区 ; (콴청창장생활물류집중구)宽城长江生活物流集中区 ; (씽롱종합모세물류집중구)兴隆综合保税物流集中区 ; (녹색자동차물류집중구)绿园机车物流集中区

□ 러시아 MANP 터미널, 복합운송 서비스 개시

○ 러시아 MANP 터미널이 러시아 내륙을 대상으로 한 정기 복합운송 서비스를 개시
- MANP는 2006년 GCS(Global Container Service)사에 인수된 이후 철도 및 하부 기반시설 개선, 그리고 보세창고 등에 집중 투자
- MANP 내륙 터미널은 모스코바의 주요 도로배송 허브들이 자리 잡고 있는 순환도로 남서쪽 45km 거리의 그리스티(Kresty) 철도역 옆에 위치
- 또한 삼성, 파나소닉, LG, PSA, 푸죠, 시트로앵, 미쓰비시, 아디다스. X5, 네슬레 등 주요 다국적 기업들이 생산, 조립 및 배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칼루가(Kaluga) 지역과도 근접
- 이들 기업 중 일부는 중앙러시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의 수입, 보관 및 배송을 위해 MANP 터미널을 이용 중

○ 국제 해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공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들이 MANP 터미널을 통해 러시아의 주요 수출화물 발생 지역인 우랄, 시베리아, 극동러시아까지 철도로 운송
- 이 철송 서비스는 해당 지역으로 화물을 수송하고자 하는 화주에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해당 지역 생산자에게는 수출에 필요한 컨테이너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
- 이에 따라 그간 제품수출을 위해 높은 추가비용을 부담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공컨테이너를 조달해온 해당 지역 수출업체들은 고가의 공컨테이너 조달비용 절감 가능
- 현재 러시아에서 동향으로 운송되는 화물은 주로 국내 화물 또는 모스코바 인근 배송센터에 입고된 수입 식품, 음료, 생활용품(FMCG : Fast Moving Consumer Goods) 등

○ MANP는 GCS가 소유한 무개화차를 사용하며, 필요시에는 삼자물류회사 소유의 무개화차도 사용
- 현재까지는 75개의 40피트 컨테이너와 144개의 20피트 컨테이너를 해당 신규 서비스에 배정

○ 이 외에 MANP는 철송 서비스와 같은 방식으로 유럽에 속하는 러시아 지역의 수하인에게 도로운송 서비스도 제공

자료 : container-mag.com, 2013.10.10.

김홍매 전문연구원 (☎ 02-2105-2828, hisgrace@kmi.re.kr)

□ 프랑스 르아브르항, Port 2000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 최종단계 진입

○ 프랑스 르아브르항 운영을 담당하는 Grand Port Maritime du Harve(GPMH)가 Port 2000 컨테이너 터미널에 추진 해온 2개 신규 선석 개발사업이 최종단계에 진입
- GPMH가 Port 2000에 개발 중인 해당 2개 선석은 현재 운항중인 가장 큰 컨테이너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한 심수터미널로 건설
- 해당 2개 선석 운영권에 대한 참여의향서 모집은 2013년 10월 1일 종료되었으며[1] GPMH는 입찰자들에 제시한 투자요구 규모, 부두운영개시 시기 등 세부사항에 대한 공개 거부

○ 2006년 개장한 르아브르항 Port 2000 컨테이너 터미널은 현재 10개의 선석으로 구성
- CMA CGM와 MSC가 각각 4개 선석, Maersk가 2개 선석 운영 중
- MSC와 화물 운영사인 Terminaux de Normandie(TN)은 5:5의 합작투자회사인 TNMSC 통해 자사가 운영하는 4개 선석에 1억 6천만 유로 투자

○ 신규로 건설되는 11, 12번 선석은 총 선석길이 700미터, 야적장 넓이 36ha의 규모로 건설 예정
- 초대형선박을 위한 진입수로 준설 및 1400평방미터 규모의 부두 건설을 위해 2억 7천만 유로의 공공자금 유치
- 2개 선석 최종 개발 시 Port 2000은 총 12개의 선석을 갖추게 되어 연간 450만~500만 TEU의 컨테이너 처리 가능
- 르아브르항은 2013년 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190만 TEU 처리를 처리

○ 이와는 별도로 GPMH는 현재 운영하지 않는 Normandie 컨테이너 터미널 안벽 확장사업을 위해 또 다른 참여의향서 모집 중

자료 : www.lloydsloadinglist.com, 2013.10.4.

전형모 전문연구원 (☎ 02-2105-2817, hmjeon@kmi.re.kr)

1) KMI 국제물류위클리 제 221호 참조

□ CEVA, 제약품 수송을 위한 새로운 콜드체인 솔루션 출시

○ CEVA는 온도변화에 민감한 제약품 수송을 위해 Tower[1]와 함께 KTM(Kryo Trans Modular) 솔루션을 출시

- 이 솔루션은 CEVA의 물류 전문성과 Tower의 콜드체인용 포장용기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제약품 수송시 품질유지가 가능
- 콜드체인을 위해서는 화물의 환적 과정에서도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전문 지식과 운영능력이 필요한데 CEVA는 물류 전반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Tower는 정밀한 포장 시스템 구축에 특화
- CEVA와 Tower는 KTM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복합수송에 적합하도록 수송수단에 관계없이 온도변화에 대응이 가능한 모듈식 컨테이너(Modular Container)를 제작하여 백신과 같은 제약품 수송에 용이하도록 공급사슬을 구성

○ CEVA는 의약품 콜드체인에 적합한 Tower의 모듈식 특수 컨테이너를 사용

- 모듈식 컨테이너는 -20℃의 냉동이나 2~8℃의 냉장, 15~25℃의 상온을 유지할 수 있으며 -20에서 -60℃까지의 극냉동 상태에서는 드라이아이스를 통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작
- 특수 컨테이너를 통해 자체적으로 최대 6일까지 온도 유지가 가능하게 되면서 해상 운송을 통한 극한 환경에서도 제약품의 상태를 온전하게 유지 가능
- 모듈식 컨테이너는 12가지의 다양한 크기로 제작되었는데, 유럽식 팔레트부터 미국식 팔레트 규격까지 다양한 크기를 지원
- KTM 솔루션에서는 온도 기록장치를 통해 운송 과정에서 내·외부 온도변화를 기록함으로써 운송과정의 온도변화를 추적할 수 있으며 근접 센서를 통해 컨테이너 개봉 여부도 확인 가능

○ CEVA는 Tower와의 파트너쉽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

- 독감 백신과 같은 의약품 종류는 약효보존을 위해 정확한 온도유지가 필수적인데, CEVA는 Tower와의 파트너십으로 기술적 한계를 극복
- 제약품 고객사들은 각기 다른 크기의 팔레트 화물로 운송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Tower는 CEVA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시장에서 원하는 다양한 크기의 모듈식 컨테이너를 개발
- 특수 컨테이너 화물은 다양한 운송수단을 통한 일관수송이 용이하기 때문에 양사의 전문성을 살린 새로운 솔루션의 개발은 새로운 경쟁력 원천

자료 : www.shdlogistics.com, 2013.10.7.

이홍원 연구원 (☎ 02-2105-2897, hongwon@kmi.re.kr)

1) 특수 컨테이너 전문 제작사

물류시장동향

□ DHL Express, 2014년 운임 인상 발표

○ DHL Express가 2014년 아시아·태평양지역 평균운임을 5% 인상한다고 발표

- DHL Express는 220개가 넘는 국가를 대상으로 배송 서비스를 수행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유가상승 등 다양한 운임인상 요인을 검토하여 연례적으로 가격을 조정
- 운임 조정은 각 국가별 상황에 따라 인상폭이 상이하며, DHL Express와 계약하는 모든 대상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
- 정시배송 서비스(Time-definite delivery)의 요금 인상폭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3.9%, 자메이카는 5.9%이지만 인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10%가 될 전망
- DHL Express의 CEO인 Ken Allen은 요금 인상을 통해 자체 네트워크의 질을 높여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수준을 유지하여 지속가능한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DHL Express는 매년 인상된 요금을 바탕으로 물류센터 확장,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투자하였으며 이를 통해 모든 고객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다고 발표

자료 : www.thesundaily.my, 2013.10.7.

이홍원 연구원 (☎ 02-2105-2897, hongwon@kmi.re.kr)

□ 아시아발 유럽향 해상 컨테이너 운임 인상 예정

○ 주요 컨테이너 선사들이 아시아발 유럽향 해상운임 인상계획을 발표

- Evergreen, CMA CGM, ANL은 오는 11월 1일 부로 '아시아-유럽' 해상항로의 컨테이너 운임을 'Evergreen-$950(20ft)·$1,900(40ft)', 'CMA CGM-$1,000(20ft)', 'ANL-$1,000(20ft)'으로 각각 대폭 인상할 예정
- Evergreen의 경우, '아시아-인도' 항로의 운임 역시 11월 1일 부로 $150(20ft)와 $300(40ft)로 인상할 계획
- Cosco, Hapag-Lloyd는 '아시아-중남미(서부)' 항로의 운임을 11월 9일 부로 각각 $1,000(20ft)와 $2,000(40ft)로 인상할 예정
- 또한 Hapag-Lloyd는 추가적으로 '아시아-홍해' 항로의 운임을 11월 1일부로 $500(20ft)로 인상할 계획

○ 각 개별 선사들의 운임 인상 발표와 더불어 G6 alliance의 윈터 프로그램(Winter Program) 가동 등에 따라 전 세계 주요 컨테이너 항로의 운임이 인상될 예정

자료 : www.joc.com, 2013.10.11.

민경창 연구원 (☎ 02-2105-2741, kcmin0525@kmi.re.kr)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센터(KMI) 문의
- 해외투자사업 정보 및 해외투자사업 관련 타당성 조사 등 해외진출 관심기업은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로 문의

↓

사업신청서 작성
- 해외투자사업 관련 구체적인 업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지원)신청서 작성

↓

사업추진계획 협의
- 기업의 의뢰 내용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와 사전 지원사항 협의

↓

예비조사 실시
- 사업가능성 확인을 위한 현지 경제무역 현황 및 물동량, O/D, 시설 등 해운물류현황 조사
- 현지 조사(Fact Finding) 실시

↓ 공동추진

설명회 개최
- 기업대상 사업 설명회 개최
- 초기 관심기업 우선지원

↓

협의체 구성
- 관심기업들의 논의를 통한 협의체(컨소시엄) 구성

↓ 단독추진

사업추진계획 확정
- 사업추진방향, 전략, 정부 지원사항 등 협의

↓

사업타당성 조사(FS)
- 물동량 예측, 투자비, 자금조달 계획 등

↓

사업추진 및 투자
- 투자재원마련 등 사업추진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